

섬길자를 택하라

여호수아 23-2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목시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도다.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거니와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항상 친근히 대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37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 땅에 모으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조상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 내셨느니라.
그리고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고 아모리 사람들을 멸절시켰느니라. 발람이 너희를 저주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가나안 여러 민족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 이곳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다른 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면
애굽의 신이든지, 아모리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셨으며, 항상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여호수아와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큰 돌을 성소 곁에 세웠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어 담낫 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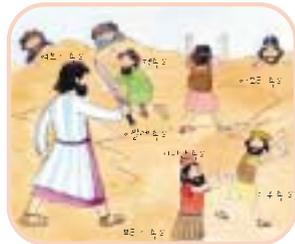
오늘의 공부

여호수아의 명령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본문을 자세히 읽고 적어 보세요.

2. 여호수아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며 적어 보세요.



3.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던 110세의 여호수아라면,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백성의 결심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은 어떠한 결심을 했는지 적어 보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섬길 자를 택하라!

.....

.....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해 주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4:18)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결심하세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의 말은 아직도 살아 있어 오늘날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나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고 결심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지만, 후에 그 결심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결심한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결심하며 굳게 지켜 나가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시편 108:1)

알아볼까요



오직 한 분에게만 충성을

고려의 장수 강조와 부대장 이현운은 거란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란의 왕 성종 앞에 섰습니다.

성종은 말하였습니다. “이제라도 거란을 위해 일하는 용사가 되겠다면 목숨을 살려 주겠다.”

약삭빠른 이현운은 “새 하늘 아래 거하게 된 지금 옛 하늘을 그리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성종을 위해 충성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몽맹하고 충성스런 강조는 “나는 고려의 장수로서 나의 생명을 마치고 싶소!”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옆자리에 있던 이현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고려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용사된 몸으로서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느냐? 죽어 마땅한 놈!”

결국 이현운은 나라를 팔고 목숨을 지켰으나 강조는 고려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 몇몇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